

#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양수경\* · 권순희\*\*

## 〈차 례〉

- I. 연구의 필요성
- II. 새터민 선정과 연구 방법
- III. 남북한 화법 차이
- IV. 맺음말

## I. 연구의 필요성

새터민<sup>1)</sup> 1만 명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10명 내외로 매우 적은 인원이 남한으로 입국한 반면,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더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연간 1,000명을 넘어 거의 2,000여 명이 새터민에 추가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약 1만 명의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

- 1)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새터민이라 부른다. 한 동안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어휘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2004년도 하반기에 통일부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빈곤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익힌 기술로는 남한에서 쓸 곳이 없고, 막상 기술학교를 다녀서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 이념과 경제 체제, 문화와 사고 방식, 언어 등 모든 것이 낯선 남한에서의 적응은 마치 이민자들의 상황과 비슷하다. 많은 이민자나 난민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새터민 역시 언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60여 년 동안 이질화되어 온 어휘와 억양으로 인해 새터민들은 남한 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터민이 사용하는 언어와 남한의 언어가 서로 달라 원활한 정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새터민이 정보를 얻는 통로가 대면적인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새터민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더디게 하고 사회적 고립을 우려하게 만드는 부분도 언어의 차이에 기인한다. 조용완(2006 : 134)에서는 새터민의 심층 면접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해 보지만, 말투를 듣고 바로 어디에서 왔냐고 묻는다. 말투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 어디를 가나 우리들은 구별이 된다. 억양이 달라서 남한 사람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 이제 한 3년 되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물어보는 것이나 알아듣는 것이 되는데, 다른 이야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웃의 남한 사람들과도 대화가 어렵다보니, 우리 탈북자들끼리 이야기하게 된다.

김미숙(2005)에서도 새터민 초등학생 34명, 새터민 중학생 31명을 대상으로 고민을 조사한 결과 새터민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학교 성적(73.9%)이고 초등학생의 경우에 ‘말씨가 다른 것(20.6%)’에 대한 고민이 성적 다음으로 많았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6 : 24).

새터민들의 구체적인 언어 적응 실태를 조사한 전경일(2000)과 문금현

외(2005)에서는 새터민들 스스로 남한 말을 이해 못하는 주된 이유로 생소한 단어, 특히 외래어 때문이라는 요인을 논의하고 있으며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남한식으로 발음과 억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새터민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새터민 교육 기관인 하나원<sup>2)</sup>에서도 주로 어휘와 발음 및 억양 교육 위주로 언어적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은 어휘와 말소리 영역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심각한 어려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언어 사용 영역, 화법에서의 연구가 미미하게 이루어졌다. 남과 북의 언어는 말소리와 어휘, 형태소와 문법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공유하고 있어서 아직은 통역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분단 60년이란 시·공간적 단절 및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sup>3)</sup>는 다양한 맥락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의 방식 즉 화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질적인 양상을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 간에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치, 경제체제의 차이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은 어느 정치사회 이론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를 60여 년 유지해온 나라인 반면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 개방되어 관련 문물과 현상들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

2) 하나원(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은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을 위해 1998년 7월에 설립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초기에는 경기도 안성에 수용 인원 10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탈북 난민들의 수용을 위해 2배 규모로 수용 인원을 확장하였고, 2004년 8월, 인원 증가에 따른 관리 한계 및 성별 차이에 따른 직업 교육 효율화를 위해 시흥시에 본원을 설치하였다. 기존 새마을 교육원 건물을 매입하여 남성들만 별도로 분리 수용하고 있다. 본원의 현 수용 인원은 370명, 본원의 현 수용 인원은 70명 (2006년 12월 현재)이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다달이 120명 정도의 새터민들을 교육하여 남한 사회로 유입시키고 있다(이준혜, 2006 : 119).

3) 음악의 발성법에 빗대어도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딕 양식으로 천장이 높게 만들어진 건축물 내에서 성가를 하였던 서양의 문화에서 발달한 발성법과 마당을 무대로 하여 관을 벌였던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발성법이 다르다. 서양의 건축 양식에서는 목소리의 울림이 좋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로 부를 필요가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당을 무대로 삼기에 목소리의 반사적 울림 현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대가 발성법을 변화시키듯, 우리 사회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물론 그 속도 성립한다.

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문화를 고려할 때 남북 간에는 지역 방언의 차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다소 큰 화법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화법의 차이는 남한인과 북한인이 실제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할 때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연구자가 예비조사 차원에서 새터민을 접한 경험이 있는 남한인에게 북한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었다.

대화의 어려움이라는 게 말 그 자체를 떨어뜨려서는 별로 없고 말하는 내용의 문화적 맥락이나 분위기, 내용상의 차이인 부분이 많은 듯해요. 배경지식이 없어서 잘못 알아듣는 거죠.

—박○○, 남한인

남북한 언어 차이에 관한 연구로는 고영근(1988, 1989), 박갑수(1995), 이주행(1997, 2004)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언어 문화 차이에 대한 접근을 이주행(2006)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주행(2006)에서는 남북한 신문과 교과서에 쓰인 언어를 분석하여 전투성, 주체성, 규범성, 이상화, 최고 통치자에 대한 충성 등을 북한 언어의 특징으로 도출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제도 등이 상이한 상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상이한 언어 문화가 형성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석향(2005-7, 2006)은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언어의 차이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연구이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남북한 언어의 가장 큰 차이는 남한어에서 많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석향(2005)에서는 남북 언어의 문제가 단순한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교환에 따르는 사회적 의미를 의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문화적 경험에 따른 차이나, 두려움, 차별, 무시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을 언어의 차이보다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보다도 새터민 스스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접근하고 있다. 그 만큼 언어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와 떼어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국어 교육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주제이다. 그동안 남북한 언어의 문제는 북한학 연구, 국어학 연구에서 주로 논의된 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화법 차이를 통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인과 북한인이 만나는 기회가 잦아지고 있고 이미 국내에도 북한을 탈출하여 입국한 새터민 만여 명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sup>4)</sup>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이미 통일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필요 없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법 차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 ○○<sup>5)</sup>교회에서 3년간 새터민들과 접촉하면서 새터민들이 직장이나 일상 생활 중에서 언어사용의 차이 때문에 곤혹스런 경험들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이렇듯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남북 화법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남북한의 화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북한인들을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므로 탈북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북한인들의 화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을 연구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일반인들이 새터민을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심층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연구자가 다니고 있는 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4) 현재 남한으로 탈출해온 새터민(통일부, 2006년 6월 기준)은 8,541명이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2006년 6월 현재)

| 구분 | '89까지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6 | 합계    |
|----|-------|-----|-----|-----|-----|-----|-----|-----|-----|-----|-----|-----|-----|-------|-------|-------|-------|-------|-------|
| 인원 | 607   | 9   | 9   | 8   | 8   | 52  | 41  | 56  | 86  | 71  | 148 | 312 | 583 | 1,139 | 1,281 | 1,894 | 1,383 | 854   | 8,541 |

5) 새터민의 신분 보호를 위해 연구 조사 장소와 면담 대상자의 본명을 밝히지 않았음.

## II. 새터민 선정과 연구 방법

연구자는 ○○○ ○○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새터민 네 명을 면담하여 남북한의 화법 차이를 조사하였다. 면담 대상자에 대한 간략한 인적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새터민                | 성별 | 나이  | 입국 시기 | 북한내 직업 | 현재 직업   |
|--------------------|----|-----|-------|--------|---------|
| 조 ○○ <sup>6)</sup> | 여  | 47세 | 10년 전 | 디자이너   | 자영업     |
| 문 ○○ <sup>7)</sup> | 여  | 30세 | 3년 전  | 대학생    | 취업 준비 중 |
| 장 ○○               | 여  | 35세 | 4년 전  | 사무직    | 가정 주부   |
| 이 ○○               | 남  | 37세 | 1년 전  | 약사     | 취업 준비 중 |

연구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편안한 환경에서 연구 질문을 하였고 자유롭게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도록 유도했다. 면담은 피면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직후 녹음된 내용에 대해 전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새터민과 교회에서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남한인과 일부 새터민과의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야기했던 남북한 화법의 차이’를 미리 예측해 보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차이로 드러난 항목은 첫째, 화법관, 둘째, 간접 화법, 셋째, 남녀 화법이었다. 여기에 선행 연구 및 새터민을 약 3년간 접촉한 남한인의 지적을 참고하여 공적·사적 화법의 차이 항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새터민들과 면담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6) 입국 초기에 대북방송 관련 일과 강연을 활발하게 함.

7) 북한에서는 평범한 학생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시험 준비중임.

### III. 남북한 화법 차이

새터민들을 개인별로 면담하여 남북한 화법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간접 화법의 영역이었다. 또한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화법관과는 달리 새터민들은 신중한 말태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화법관을 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남녀 화법 역시 달랐다. 새터민들은 남녀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전통적 남녀 화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북한 화법 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공적·사적 화법의 차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법의 차이에 대한 면담 결과를 한 항목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화법관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화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으며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표현의 적극성보다는 신중함을 더 강조했다.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 가치를 상당부분 지키고 있으나 핵가족이 보편화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는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러한 전통적인 화법관을 많이 상실했다고 본다. 즉 젊은 세대로 갈수록 말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서, 말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좋고 젊잖은 사람보다 재미있고 솔직한 사람이 좋다는 생각이 많아졌다. 또한 전통적 가치인 진실함보다는 서구적 가치인 유창함을 좋은 화법의 조건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임태섭, 1999).

이에 반해 면담 결과 새터민들은 전통적인 화법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은 적을수록 좋다는 등 말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남한에서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서구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전통적 화법관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연구로 미뤄볼 때 앞으로 남북한의 차이가 더 크게 예상되는 부분이다.

말 잘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아도 논리가 정연하고 현실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 행동이 절도 있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뒤따를 때 그 말에 신뢰를 할 수 있어요.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고 행동은 평인 사람은 험잡꾼이죠. 미사여구가 많고 화려하고 유창한 것보다 진실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좋아요.

-문 ○○, 30세, 여

일상생활에서 잡말은 잘 않는다. 친구들끼리 “저 사람은 입이 무겁다”고 하면 칭찬하는 말이다.

-이 ○○, 37세, 남

특히 말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정치적인 비판, 체제 불만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북한의 사회 분위기 탓인지 우리의 전통적인 화법관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만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한번 쏟아낸 말은 주워담지 말아라. 자기가 말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파오가 돼서 죄인이 되고 3대가 멸족하는 분위기다. 신중하게 조심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게 보통이다.

-장 ○○, 35세, 여

남한에 오자마자 강연을 나갔는데 북한에서 강연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술술 잘 나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일단 북에서 위에서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말하면 당장 잡혀가기 때문에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그러니 말이 술술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남한에 오니 내 마음대로 계속 얘기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조리있게만 얘기하면 되었다. 아는 지식,

살아온 경험, 살아온 얘기들…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누가 토를 달기를 해, 뭐라고 그래… 처음에 강연 전에 몇 장을 쓰고 말이 틀리면 고치고 하면서 그걸 보고 읽으려니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강연을 듣는 이들이 평가하더라. 읽지 말고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강연 초청받으면 줄거리, 요점만 정리해 가서 직접 얘기하니 두 시간도 세 시간도 하겠구나 싶었다.

—조 ○○, 47세, 여

사적인 자리,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정치적 얘기는 하지 못한다. 여기서 는 노무현이 잘했나 못했나 올해는 공공요금만 많이 올랐다 등 편하게들 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 나쁜 아니라 3대가 멸족하니까.

—이 ○○, 37세, 남

새터민 면담을 통해 살펴볼 때 북한인들은 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함, 말보다 행동을 중시함, 표현의 적극성보다는 신중함을 강조함 등의 전통적 화법관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북한사회의 사상 통제 영향으로 말의 신중함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한의 서구화된 화법관과 비교해 볼 때 전통적인 화법관을 유지하고 있는 새터민들은 초기에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화법 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자신의 능력과 강점으로 계발되고 훈련되는 남한의 분위기 속에서 말이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교육받은 화법관이 무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2. 간접 화법

간접 화법은 의도하는 내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관련된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하는 화법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성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

대방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을 면담한 결과, 남한 사람들의 간접 화법, 그 중에서도 완곡한 표현과 간접 화행이 낮설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1) 완곡 표현

완곡 표현은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등 좋지 않게 들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시키는 표현이다. 남한인들은 상대방에게 거절을 해야 할 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나 그거 못해” 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싫어”, “안돼”, “못해” 식으로 거두절미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고려해보자”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장의 거절을 피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친숙한 인간관계에서라면 위 정도의 표현으로서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은 안다(곽단양, 2006). 그러나 면담 결과, 새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다음에 연락할게요”와 같은 의례적인 인사를 진지하게 듣고 연락을 기다렸다가, “생각해 볼게요”같은 완곡한 거절을 못 알아듣고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남한 사람들이 “나중에 연락할게”, “생각해 볼게” 해놓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 아니 말갓고 장난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안된다고 내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나쁘고 배신감 느끼죠. 이제 좀 습관화되어 괜찮아요.

-문 ○○, 30세, 여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면서 “다음에 봐요”<sup>8)</sup> 그러면 우리 댄엔 정말 연락

8) 외국인의 경우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한다. 동유럽 키르기스스탄에서 서울로 유학 온 졸도쉬는 학기초에 한국인 친구가 “언제 저녁이나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하자 내심 약속을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저녁 먹자는 제안이 친교 관계를 나타내는 인사말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 와서 또 만나겠구나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 오랜 기간 생활하다 보니 아 그런게 의례히 있는 말이구나 알아듣게 되었다.

-조 ○○, 47세, 여

새터민들은 확실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직하고 인간관계에서 좋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숨김 없이 이야기하는 반면 남한 사람들은 앞에서는 듣기 좋게 말하는데 뒤돌아서면 말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완곡한 거절이나 의례적인 인사말 같은 간접 화법을 사용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때로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같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새터민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직접 하지 않고 말을 점잖게 하는 것을 남한의 화법으로 인식하면서 남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사나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태도를 보고 남한인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애들거나 이중적으로 행동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들 말은 믿음이 가질 않는다. 빈소리가 많다. 지금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믿는다. 여기 가게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남한 청년 하나가 개업식에 왔다가 형광등이 고장난 걸 알고 달아주겠다고 얘기했었다. 그 약속을 믿고 와서 달아주기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더라. 그제서야 “거봐라, 빈소리였다” 하며 더 기다리지 않았다. 근데 며칠 뒤 진짜로 등을 가져와 달아주는 걸 보고 “야, 이런 한국 사람도 있구나!”하며 놀랐다. 이런 식이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말은 끝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 물론 믿을만한 사람도 있다. 말은 자기가 할 수 있을 소리만 해라 교육받는다. 북한사람들은 싫으면 싫은 게 확실하게 얼굴에 나타난다. 안될 것도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하고 다음에 찾아가면 안되는 게 여기서는 보편적이지만 북한사람들은 그러면 사기꾼이라 욕한다.

-이 ○○, 37세, 남

면접을 본 후에 직접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무조건 전화오기만 기다렸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렇게 떨어지면 연락을 따로 안 해주는 걸 알았다. 북한에서는 그 자리에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바로 알려준

다. 빨리 알려줘야 구직자도 다음 직장을 알아보든가 자기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 ○○, 35세, 여

정향진(2005)은 이러한 차이를 남북한 감정규범의 차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남한의 감정 규범에서는 감정의 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보다 민감하여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완곡 표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새터민들은 이런 남한 사람들의 표현을 이중적이라고 보고 그에 대하여 자신들의 표현이 진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새터민들의 직선적인 표현은 남한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며 종종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완곡한 거절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례적인 인사말로 건네는 말을 끝이 끝대로 알아듣고 오해한 경험을 입국 초기 새터민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화법의 차이가 실재함을 보여준다. 남한의 일상적인 완곡 표현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질 때 새터민 개개인이 겪는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2) 간접 화행

간접 화행은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 원래 표현 내용과 다르게 문장 유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 좀 닫아 줘”의 내용을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의문의 간접 화행을 택한 것이다. 간접 화행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거절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좀더 예의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면담 결과, 새터민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말, 즉 명령이나 요구를 할 때 주로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해 남한인들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 줄래?”나 “○

“○해 주면 좋겠다”, “○○하면 어떨까요?”등의 요청하고 부탁하는 투의 표현은 북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들한테는 “○○해”, “○○해라”같은 직접 명령하고 지시하는 투의 말이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에둘러서 하는 말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다. 이해가 안가더라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밥 먹자” 그러지 “밥 먹을까?”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 않는다. 직접 얘기하는 게 더 친근감있고 더 좋게 느껴진다. “밥 먹을까?”하고 물어오면 이게 먹어야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조 ○○, 47세, 여

북한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직접, 완결법을 써요. 요구가 아닌 지시 투의 말을 써요. “~해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야!”하고 부르면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그런데 집에서 “야! ○○해라”하고 언니나 동생한테 쓴단 말입니다. 일상화되어 있어요. 기껏 “○○해 주세요”도 아닌 “○ ○할까?” 정도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최고죠.

-문 ○○, 30세, 여

면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인이 직접 화법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앞서 화법관에서 밝힌 신중한 말 태도와 상반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선행 연구(정향진, 2005)에서도 다음의 새터민 면담을 인용하며 이중적 태도를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사 발표하는 능력이라든가 이게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연구자: 그런데 왜, 대인관계에서는 자기 의사를 탁탁 얘기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아, 아, 그것이 참 묘한 건데, 사회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는, 개인적인 것에서는, 그게 미묘한 선이 또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의식을, 성격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요인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감시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 사상적인

화제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받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개인들 간에 직설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화제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극도로 억제하지만, 이와 관련이 없는 대화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법 차이는 남한 사람들에게 더욱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 생활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부드럽게 요청하고 부탁하기보다 직접 명령하는 투의 말을 쓴다면, 북한 사람이 무례하고 거칠다는 생각을 남한 사람들은 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특성이 북한 화법 문화임을 인식한다면 서로간의 오해로 인한 갈등을 다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남녀 화법

남녀 간의 대화 양상이 다르다는 입장에서 남녀 화법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남녀가 어휘 및 화제, 음운, 통사상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기존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적 사회이며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과 생활 영역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 화법의 차이가 적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남녀의 관계나 역할이 변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화법 차이가 좁혀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녀 화법의 차이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역할의 양상, 또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관점(권순희, 2004)에서 보면 남녀 화법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남한에서 사회적인 역할과 힘이 성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정도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면담 결과, 북한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남녀 화법의 차이가 남한보다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이나 명령, 요구를 하는 것이 드물며 남편이

얘기하는 중간에 아내가 끼어드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진다.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고 싶으면 여  
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것 같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사람 나름이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에서 여성은 공손하고 대들지 말라고 가정교육을 받아요. 남자  
가 주도권이 많기 때문에 시집가서 남편한테도 남자가 눈 부릅뜨면 대다수  
여자들은 무서워, 하고픈 말을 못해요. 북한이 더 봉건화되었기 때문에 여자  
는 남자에게 덤비면 안된다, 말과 행동을 조신하게 하는 분위기예요.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오빠한테 “오빠, ○○해요”라고 요구하는 건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여기 와서야 내가 바빠면 이것 좀 해달라고 오빠한테  
요구도 하게 됐어요.

-문 ○○, 30세, 여

확실히 남녀차이가 심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여기 와서도 몇 년동안은  
신랑이 하자는 대로 다하고 뒤통을 해도 신랑을 우선시하고 존경하고 떠받들  
었어요. 밥먹을 때 말할 때 끼어들면 재수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여자가 남  
자한테 말하는데 끼어들다, 여자가 쪼렷거리며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했어  
요. 내가 아는 친구 하나가 남편이 말마다 욕하고 머저리같은 거 하며 말을  
막고 그렇게 무시하니까 본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말도 더듬고 자기 표현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 ○○, 47세, 여

풍습인 것 같아요. 그 곳 문화. 북에서는 남자아이들은 군에 만16, 17세에  
군대에 들어가서 10~13년 군생활을 하니 별로 집에서 교육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집에 어머니가 데리고 있으면서 전통적인 풍습을 전수해  
줍니다. 시부모님을 공경하든지 밥, 김치, 장국 만드는 법을 비롯해 남편  
공대하도록, 무슨 말을 하든 “알았습니다”하고 순종하게 가르치지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해도 가정에 들어오면 여자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다 가르칩니다. 만약에 남편 말에 대들고 그러면 성질 급한 북한 남자들한테서  
당장 주먹이 날라옵니다.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략 80~90%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게 해야 주변에서 ‘모범 가정’으로 인정해 줍니다.

-장 ○○, 35세, 여

북한은 우리의 유교문화의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가족주의, 성차별 등 유교적 전통을 척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장려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론화하여 강조하고 있다. 유교문화적 전통은 특히 남녀간의 성차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제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높인 것은 사실이나, 전통적 여성상과 역할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에서 여성들은 직장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책임진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을 ‘세대주’라고 호칭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차별적 권위주의 태도가 흔하게 발견된다. 이러한 현실은 1990년 제정된 가족법에 반영되어 여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가 언어생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 사회에서 남성은 대화 시 대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듣기보다는 정보 전달과 의견 제시에 치중하며, 제안 시 명령조를 사용하고 발언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남성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정보를 알아도 굳이 내세우지 않고 남자와의 대화에서 대화 주도가 어려우며 듣기 중심인 여성 화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화법의 차이는 새터민들이 남한에 입국해 생활해 가며 남녀 역할 및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새터민 남성들은 북에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반면 여성들은 중국이나 남한 남성에게 비해서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에 불만이 있는데다가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북에서처럼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갈등 때문에 실제로 새터민 가정 중에는 부부가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도 부부 간에 잦은 불화와 다툼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꽤 있다고 한다. 새터민에게 실시하는 사회 및 언어 적응 교육에 남북 간의 남녀 역할 및 지위의 차이, 남녀 간 화법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4. 공적·사적 화법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들,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들으면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느낌, 무언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김일성과 통일에 대해 울먹이며 얘기하는 북한 어린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 화법의 양상을 다룬 한 연구(임철성, 1996<sup>9</sup>)에 따르면 우리가 접하는 북한 방송이나 언론 상에서의 화법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화법 교육<sup>10</sup>의 영향을 받은 공적 화법으로서, 북한의 일상적인 화법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위 연구는 북한 제작 영화 두 편과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 등을 자료로 북한 화법을 조사한 결과, 김일성이나 사회주의와 관련되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의 감정 표현은 실제로 남한의 감정 표현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들의 음색, 억양, 태도, 표정이 북한식(=주체사상식)으로 변하는 것은 이들이 김일성 부자나 사회주의 체제에 관하여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였다고 한다.

연구자는 북한 화법 교육의 영향으로 새터민들이 공적인 화법과 사적인 화법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즉, 공적인 화법에서 억양과 어조가 선동적이고 전투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항목을 면담 내용에 추가했다. 예비 조사 시 새터민들을 5년 정도 접촉한 경험이 있는 남한인 최○○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있었다.

새터민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분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교회에서 돌아가며 소감을 말하러든지) 다소 연설식이 되고 다짐이나 각오를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뭐 옛날에 웅변하는 걸 들으면(우리 댄 반공 웅변이 있었

9) 북한 화법 교육의 특징으로, 소리마루(말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 억양, 끊기, 속도, 울동성 등 ‘운율’에 해당하는 북한말)를 강조함으로써 조장하는 선동성, 감정은 사상을 바탕으로 표현된다고 규정하고 김일성과 사회주의 체제에 관련된 내용의 감정형상화를 규범화해놓은 사상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영향은 공적 화법 즉 방송 화법이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임철성, 1996<sup>11</sup>).

는데)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비언어적인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보니깐 진실성이 떨어지게 느껴진다 이거죠 뭐 북한 체제 영향이겠죠.

-최○○, 38세, 여, 남한인

그러나 실제 면담 결과, 새터민 중에는 공적·사적 화법의 차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었다. 다음과 같이 공적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육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이나 억양이 나오게 된다는 견해가 새터민 네 명 중 한 명에게서 나왔다.

북한의 선전기동대나 방송에서는 요란하고 효과적인 음악을 깔아놓고 반복적으로 격앙되고 선동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마치 붉은 색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흥분하게 돼요.

(연구자: 북한 화법 교육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있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하면 경직되고 하나같이 똑같은 표정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모임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하고 설득시켜야 할 때 교육받은 대로 그런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이나 억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문 ○○, 30세, 여

다른 세 명은 대중 앞에서 말할 때의 특별한 화법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북한 내에서도 텔레비전 아나운서나 직업적으로 당 정책을 선동, 홍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그렇게 과장되고 격앙된 억양으로 말하는 법을 따로 훈련받았다고 하였다.

대중 앞에 나서서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 정책을 표현하고 선동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호소성이 있고 선동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별로 없지요. 직업적으로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인 경우, 대담이나 단막극을 하는 사람들, 당정책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연단에 섰다 하는 것은 상대를 이끄는 자세가 필요하고, 연단에 나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

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호소성 있게, 선동성 있게 말해야 하지요.

-이 ○○, 37세, 남

방송투의 말은 뉴스 앵커들이나 예술인, 소개인 등이 소개하는 말이나 시 낭송 같은 것을 할 때 연습해서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일반 방송 진행자들은, 여기선 MC라고 하던데, 평양에서 쓰는 자연스런 말씨를 사용한다.

-조 ○○, 47세, 여

정리해 보면, 30세의 문○○을 제외한 세 사람은 북한의 화법 교육이 특별히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런 주체사상식 감정표현은 직업적으로 필요한 당정책 홍보전문가나 뉴스 앵커들에게만 훈련되고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주체사상식 화법 교육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장년층의 일상화법은 남한과 거의 비슷하거나 방언적 차이에 불과한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화법의 이질감이 심해진다는 관찰임철성, 1996-)과도 일치한다.

북한 화법에 대한 남한의 인식은 주로 접하는 북한 방송 또는 회화화된 코미디에서 형성되었다. 선동적이고 전투적인 억양과 어조 등 북한 화법의 이질감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의 면담 결과이기는 하나 이러한 인식은 편향된 것으로 북한의 일상적인 화법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으며, 다만 북한 화법 교육을 받은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경우 공적 상황에서 주체사상식 감정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 화법과 사적 화법의 차이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IV. 맺음말

새터민은 여타 소수 민족 집단과 차이가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 왔다는 점에서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 노동자 이주민과 다르다. 새터민은 기존의 사회 내 빈곤층과도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독특한 소수집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는 소수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며 남북한 화법 차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 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람이라면, 한국 사회가 이왕 북한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너그럽게 받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더 심층적으로 해주었으면 하고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여기 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쯤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우리 국민들이 탈북자들을 나쁜 시선으로 보는 건 참 부당해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북쪽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남한 사람들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요. 만 명도 안 되는 탈북자들도 포섭을 못하면서 통일이 가능할까요?

—박상경 2006 : 29, 31

남한과 북한 간에는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호간의 교류 없는 공간적 단절,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 사회문화의 차이로 인해 지역적인 방언 차이를 뛰어넘는 언어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소리, 어휘, 문법 영역<sup>10)</sup>보다 실제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과 언어가 사용되는 화법

10) 조용완(2006 : 134)에서 새터민은 남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래어,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 그리고 지역 특유의 사투리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북한식 억양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다. 말소리, 어휘, 문법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본고에서 밝힌 화법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한 불편에 연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영역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화법의 차이는 앞으로 남한인과 북한인이 실제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할 때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한 화법의 차이 연구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개인별로 면담하여 남북한 화법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간접 화법의 영역이었다. 또한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화법관과 남녀 화법과는 달리, 새터민들은 신중한 말 태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화법관, 남녀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전통적 남녀 화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북한 화법 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공적·사적 화법의 차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화법영역의 차이를 새터민 개개인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며 깨달아가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원 등의 새터민 교육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인들도 화법 차이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새터민을 대한다면 의사소통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현재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여 명 가량의 새터민뿐 아니라 앞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계속 접하게 될 북한인들을 이해하고 생활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기여하리라고 본다.\*

\* 본 논문은 2007. 2. 17. 투고되었으며, 2007. 3.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7. 3.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영근(1988), “남북한 언어 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I) : 주로 동질성과 이질성 확인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2.
- 고영근(1989), “남북한 언어 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II) : 주로 동질성과 이질성 확인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3.
- 곽단양(2006),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완곡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화(2004), “남녀 화법 차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과 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KP2005-6,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형(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한말연구학회.
- 김석향(2005 ㄱ),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석향(2005 ㄴ),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 현대북한연구 8(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김석향(2006),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 문금현 외(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박갑수(1995), “남북한 방송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비교 연구”, KBS 한국어 연구 논문 42, KBS한국어연구회.
- 박상경(2006),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싶은 사람들”, 경향잡지 1659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이슈페이퍼 보고서.
- 이주행(1997),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 연구 논문 44, KBS한국어연구회.
- 이주행(2004), “남한과 북한의 규범문법 비교 연구”, 국어교육113, 한국어교육학회.
- 이준혜(2006), “미리 경험하는 남북통일”, 사목 통권 331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이창덕 · 임칠성 · 심영택 · 원진숙(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임칠성(1996 ㄱ), “북한의 화법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학회.
- 임칠성(1996 ㄴ), “북한 화법의 이중적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화학회.
- 임태섭(1999),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연구 /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가치관 : 전통과 변화”, 한국커뮤니케이션학7,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정경일(2000),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사회언어학 10(1), 사회언어학회.
-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조용완(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한국문헌정보학회.
- 채정민 · 이종한(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2), 한국심리학회.

<초록>

#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양수경 · 권순희

분단 60년이란 시·공간적 단절 및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다양한 맥락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의 방식 즉 화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질적인 양상을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화법 차이를 통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북한인들을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므로 탈북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북한인들의 화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을 연구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표적인 차이로 드러난 항목은 첫째, 화법관, 둘째, 간접 화법, 셋째, 남녀 화법, 넷째, 공적·사적 화법 등 네 가지였다. 새터민들을 개인별로 면담하여 남북한 화법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간접 화법의 영역이었다. 또한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화법관과 남녀 화법과는 달리 새터민들은 신중한 말 태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화법관, 남녀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전통적 남녀 화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공적·사적 화법의 차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화법 교육을 받은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경우 공적 상황에서 주체사상식 감정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 화법과 사적 화법의 차이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며 남북한 화법 차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새터민, 화법 차이, 화법관, 간접 화법, 남녀 화법, 공적·사적 화법

<Abstract>

**Study on Spee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by Interview with “Saetermin”**

Yang, Soo-kyung · Kwon, Soon-hee

It is expected that severance of time and space and socio-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after 60 years' division have made spee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Spee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revealed by analyzing the daily conversation of “Saetermin(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For this study, the North Korean speech was analyzed through severe interviews with Saetermin living in Seoul.

The representative differences found in this study are the point of view on speech, indirect speech, male and female speech, and official and private speech. The most serious difference between two Korea is indirect speech, the difference of which can cause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during daily conversation. In contrast with South Korean, Seatemin have traditional point of view on speech which is stressing careful attitude and reflecting social status. The difference in the official and private speech was found not to be serious. However persons under thirties who learned the North Korean speech use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the “Juche” ideology. Consequently younger generations of the two Koreas might show the bigger difference in the official and private speech.

This study would help Saetermin settle in the South Korea and would be a chance to discuss speech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Key words】** Saetermin(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speech difference, the point of view on speech, indirect speech, male and female speech, official and private speech